

수 학 보 고 서

소 속	(경영대학/국제통상학과)	
파 견 국 가	프랑스	
파 견 대 학	Université Catholique de Lille	
파 견 기 간	시작	(2023년/1월)
	종료	(2023년/5월)

준 비 과 정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지원하기까지 과정
	저는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하여 본교 영어과목 성적을 잘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진행되는 외국인 유학생과의 교류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국제교류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를 작성하였고 면접준비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파견교 지원 과정
	먼저 유럽권의 학교 중 기숙사가 포함된 학교와 수도에서 멀지 않은 도시로 선정하였습니다. Université Catholique de Lille은 기숙사가 포함되었고 파리와 가깝고 파견교에 대한 정보가 많아서 지원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파견국가 출국 준비 과정 (비자, 항공권, 준비물 등)
비자는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공권은 미리 구매하는 것이 좋겠지만 저는 비자가 예상과 다른 날짜로 나와서 항공권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비자가 나온 후 안전하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파 견 학 교	공항 픽업 & 오리엔테이션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하여 기차를 타고 릴 프랑드르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총 두 차례를 들었습니다. 제가 속한 단과대인 FGES에서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과 Université Catholique de Lille에서 진행한 오리엔테이션을 들었습니다. 단과대에서 진행한 오리엔테이션 후 담당자를 따로 만나 시간표를 조정하여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수업 & 학교 활동
파견교 단과대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의 syllabus를 주었고 직접 강의 시간이 겹치지 않는 지 확인하며 시간표를 짰는데 조금 번거로운 과정이었습니다. 수업은 발표, 팀플, 시험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속한 단과대는 교환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동아리는 많이 없었던 거 같습	

	<p>니다.</p> <p>기숙사 및 학교 내 편의 시설</p> <p>저는 학교와 가까운 Valentine Charrondière에서 지냈고 운이 좋게 넓은 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주방과 샤워실은 공용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였지만 그래도 금방 적응하여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살고 있어서 학교보다 기숙사에서 다양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밥도 함께 먹었습니다. 학교 내 시설은 대체로 깨끗하고 커피머신과 자판기가 있어서 쉬는 시간에 이용하였습니다.</p>
주변 환경	<p>거주지 주변 지역 정보</p> <p>기숙사와 학교는 1분거리였고 기숙사 바로 옆에 학교 도서관이 있습니다. 5분거리에는 빵집과 마트도 많아 생활하는데 편리하였습니다. 10분거리에는 공원이 있어서 날씨가 좋을 때 산책하기도 좋았습니다. 또한 버스를 타고 조금만 나가면 큰 쇼핑몰이 있어서 쇼핑하기도 좋았습니다.</p>
	<p>파견 대학 소재지 지역 정보</p> <p>Lille은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벨기에와 가까운 도시이고 기차를 타고 1시간이면 파리에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이나 공강인 날에는 파리에 자주 갑니다. 또한, 릴 공항도 있어서 프랑스의 다른 지역을 여행할 때 편리하였습니다.</p>
	<p>비용</p> <p>등록금 (해당 학생만)</p> <p>X</p> <p>기숙사 비용 (해당 학생만, 학기당)</p> <p>486,24유로 * 5개월</p> <p>추가 비용 (교재비, 보험 등)</p> <p>보험, 비자, 핸드폰 요금, 기차 구독(79유로), 교통비 등이 들었습니다.</p> <p>생활비</p> <p>첫 달에 생활용품을 많이 구매하여서 돈이 많이 들었지만, 그 후부터는 외식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까르푸에서 식재료를 사서 요리를 해먹었습니다. 한달에 40-50만원 정도 지출하였습니다. 프랑스는 외식물가는 비싸지만 고기나 야채 등은 싸서 요리를 해먹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p> <p>한달 평균 지출 비용</p> <p>생활비로는 40-50을 지출하였지만 학기 중에 여행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한달 평균 지출 비용은 매달 달랐던 거 같습니다.</p>
<p>교환학생 기간 동안 느낀 점</p> <p>교환학생으로서 프랑스에서 살면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을 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수업을 들으면서 새로운 생각과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유럽의 다양한 국가에 가기에 지리적으로</p>	

좋은 위치였기에 유럽여행도 많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일처리가 느리고 싸데평이 심한 나라지만 여행이 아닌 교환학생의 신분으로 살 수 있었다는 점에서 행복한 기억이 될 거 같습니다.

사진 첨부 (최소 5장)

